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10월 7일(금) (음력 9월 12일) Пятница 7 октября 2022г. № 39 (1200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지난 5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주최로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관련 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푸틴, 러시아의 새로운 지역들 승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네 개의 행정자치 지역을 러시아 연방으로 승인했다. 대통령은 9월 30일(금),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와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10월 3일(월)에 국가 두마가 비준하였으며, 10월 4일(화), 연방 평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이뤄졌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10월 5일(수) 아침, 푸틴 대통령은 최종적 조약체결을 비준하는 8개 문서(4개 연방법, 4개 헌법)에 서명했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지역은 89개가 되었다. 새로 편입된 지역들은 기존의 지역명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앞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로지예주, 헤르손주에서도 러시아 연방 편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개 행정자치지역의 수장의 권한대행으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제니스 푸실린,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레오니드 파세치니, 헤르손주의 블라디미르 살도, 자포로지예주의 예브게니 발리츠키를 임명했다.

1000명 이상 사할린 징집병들의 가정에 자원봉사자들 방문

이 같은 내용이 통합러시아당 공공지원본부에서 진행된 징집병 가정 지원 정책에 따른 브리핑에서 공개됐다.

블라디미르 유슈크 주 부총재는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한 가운데 사할린과 쿠릴 징집병들의 부인과 부모와 자녀들의 모든 요청들을 수습해 처리하게 된다.

주 및 지방 정부에서는 이들 가정의 일상생활, 사회적, 법적, 금융적 문제 해결에 전면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주지사의 결정으로 부분 동원령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징집된 사할린주 주민들의 가정을 위해 30만 루블리 일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러시아 연방 국방부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신청서나 서류작업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정책의 권리는 징집병의 부인, 부모, 사실혼 관계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에게 있다."고 부총재가 덧붙였다.

사할린주 전 지역에서 18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조사에 참여한다.

이에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들이 사할린 징집병의 가정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공공지원본부에는 이미 의약품, 위생용품, 어려운 병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이 공급됐다.

10월5일은 교사의 날

친애하는 교육자 여러분!

직업 기념일로서 교사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면서 여러분은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을 발휘하도록 하며, 장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성공을 하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에 여러분은 대단한 존경과 감사를 받으실 만합니다.

사할린주 정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사들의 활동을 위한 편안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신학기에는 마카로브와 이투루프 섬의 레이도워 마을에서 새롭고 현대적인 학교들의 개교를 기념했습니다. 내년에는 트롭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노글리키 3개 지역에 새로운 학교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관들을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학습과정을 위한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교사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사의 주도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사할린주 학교들에서 교육학 수업이 개설되었습니다. 우리는 교육 분야와 자신의 삶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교직의 위신이 청년들 가운데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년은 러시아 대통령이 교사와 교육자의 해로 발표하여 이를 촉진시킬 거라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자신의 일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다 성취되고, 좋은 일들이 많아 지길 기원합니다!

스승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석유·가스 포럼, 수입 대체와 지역 생활개선을 주제로 개최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극동 에너지 포럼 결과가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발표되어 지역을 위한 행사로서 주요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올해 포럼에는 기록적인 수의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86개 대표단에서 744명의 전문가, 97명의 강연자, 20개 협력사가 참가했다.

발표자들 중에는 연방 부처 대표들과 주 정부 대표, 에너지 분야 회사들의 총책임자, 혁신 기술개발자, 투자자, 국제 전문가들이 연단에 섰다.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포럼은 석유·가스산업의 전략적 정책 채택을 위한 중요한 행사이다.

에너지 포럼과 더불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중요한 일련의 협약에 서명했다.

'가스프롬 헬름 서비스'사와 협력으로 전환센터가 건설될 전망이다. 이는 디젤 연료를 가진 화물 운송차량을 깨끗한 친환경 가스엔진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해벨 에너지서비스'사와 협약의 일환으로 쿠릴 열도에 태양열발전소가 생길 전망이다. 또 하나 사할린 국립대학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게 되는데 이는 '전자 측정기'학과 프로그램에 따른 학사와 석사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포럼 중에 역사적인 사건은 코르사코브 지역에 신규 가스배급소를 위한 가스 공급 축하 기념식이 진행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석탄이나 석유보일러를 사용하던 지역이 친환경 연료로 전환되고, 약 3천 가구가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며칠에 걸쳐 행사장들에서 진행된 포럼은 사할린과 쿠릴 주민 각자의 삶을 반영하여 확실히 사할린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가스프롬이 포럼의 주요 협력사가 되었는데 이는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대형 회사와 협력 속에 발전을 위한 정교스의 신호이다.

우리는 '사할린-3'를 설립해 생산성을 촉진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석유가스 산업단지 건설을 활성화하며, 대러 제재의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사할린-2'기획은 세계적인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기업으로서 발전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을 러시아 전문가들로 교체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석유·가스산업이 현재 동부로서 자리를 옮기고 있는데 이는 사할린주로서는 큰 전망이 열리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밝혔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 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조 카리나 블라디미로브나는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한국어 교수다. 그의 한국어와 관련된 운명은 아마 어릴 적부터 정해진 것 같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태어나 제12학교에 입학하고, 제9 동양어문학교에서 2학년부턴 한국어 교육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겼고, 인문학 교육을 위주로 하는 제1김나지아가 생겨 그 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과정이 있어 김나지아로 전학했다. 그러나 김나지아에서 한국어 과목이 없어져 그는 다시 제9동양어문학교(현 동양김나지아)로 돌아와 이 학교를 졸업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한국어를 배우라는 말을 하였고 한다. 그는 뿌리를 잊지 말고 민족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래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다. 외동딸이라 카리나는 존경하는 부모의 말을 잘 따랐다.

제9동양어문학교에서 가르치던 한국어 선생 중 한 분은 현재 한국 영주귀국하신 문경자 선생이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배우기가 재미있었다고 한다. 그때 한국어 교사들이 한민족 요리체험시간도 가졌었는데 수업 후 미역국도 만들어 다 함께 밥을 즐겁게 먹었던 기억이 남아있다고 한다.

카리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10월 5일은 세계 교사의 날, 10월 9일은 한글날

한국어는 어릴 적부터 운명



3대가 함께 사는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할머니)를 모셨는데 할머니가 러시아말을 거의 하지 않아서 집에는 주로 우리말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카리나는 말을 알아들었지만 말하지는 않았다. '말 못하는 게' 같았다고 했다. 그래서 큰 가족 모임에서는 그는 사촌 형제들에게 어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통역도 해주곤 했다. 그리고 아직 한글을 모르는 그는 이들에게는 한국어도 가르쳐주었다. 러시아 말로 '하나, 둘, 셋' 써주고 그것을 가르쳤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학교 졸업 무렵에 대학 입학할 앞두고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고민하던 카리나는 '법학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법률가로 활동하려면 정말 뛰어난 실력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다. 아버지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가 자격증을 따냈지만 거의 평생 법학과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셨다. 정년퇴직을 해서야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한인들은 항상 법학, 의학 또는 교육학 전공을 우대하고 있었다. 카리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는 법학 전공을 싫어해서 언어(한국어 및 영어)선생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했다.

"사실 그 당시 통역하는 일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통역가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사할린국립대 한영과에 입학하기로 했어요. 그 해에 이 학과에 입학 희망자가 엄청 많았어요. 40여 명이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는 겨우 10명이 남았습니다."라고 카리나 선생이 대학 입학시기를 회상했다.

입학시험도 잘 보고 평소에 공부를 잘 하는 성실한 학생이어서 카리나는 국가지원을 받아 학비를 내지 않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공부하기가 재미있었으므로 이 전공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사실 필자는 카리나가 대학생 때 새고려신문이 개최하

는 짧은 글짓기 콩쿠르에 참가한 것을 기억한다. 그가 남다른게 우스운 이야기를 잘 전달하여, 20여년 전 이야기지만 심사위원들이 많이 재미있게 읽었던 적이 있다.

5년간의 대학 기간이 쓴 살갓이 지나갔고 졸업 무렵에 김순희 한국어 과장이 카리나를 불러 '대학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어서 카리나는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2003년부터 시작해 벌써 19년째, 그는 한국어 교육에 몰두하고 있다.

"김순희 선생님이 이런 좋은 제안을 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일하게 된 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돼요."라고 카리나 선생이 말하였다.

그는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의 교수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1학년생들에게 올바른 발음과 억양을 가르치는 데 신경을 많이 쓴다. 현재 동포보다 러시아인 학생이 더 많아 처음부터 발음을 올바르게 내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발음이 정확해야 문법도 잘 따르고, 유학을 갈 때 학생들이 고생을 덜 할 것이라고 카리나 교수가 생각한다.

그는 한국어 교육, 한민족 문화 교육이 중요하지만 학생들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에게 자녀 같은 존재입니다. 아직 어리고 사회와 관련해서 상담과 조언이 많이 필요한 애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도움과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연락을 끊지 않아요."라고 카리나 교수가 말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할수 있는 게 마음에 든다고 한다. 주로 아무 것도 모르는 젊은이가 졸업할 때 전문가로서 준비가 되어 사회에 나갈 때 마음이 뿌듯해진다. 특히 현재 졸업생들이 학교 교사로 취직해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볼때 이들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진다고 한다. 대학의 모든 한국어 교수들의 이러한 마음은 똑같은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는 카리나는 교

육에 관해서는 엄격한 선생이다. 자신의 두 자녀(아들과 딸)의 교육에도 엄격하다고 한다.

사실 그녀의 운명적인 사랑도 한국어 전공과 관련돼 있다. 그의 남편은 그의 대학동창이자 항상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였다고 한다. 중학교 졸업반 때 서로 알게 되었는데 대학 준비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대학 때는 연애하지 않고 그저 좋은 친구로서만 서로를 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차츰 만나면서 애정이 생겼다고 한다. 알고 보니 서로 생각도 비슷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비전도 비슷하여 때로는 동시에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며 회상했다.

이들은 대학 졸업 3년 후 결혼을 했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 삶을 함께 누리고 있다. 가족 여행도 많이 하며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크다. 카리나 선생의 취미 중 하나는 요리다. 그녀는 베이커리에 관심이 많아 여러 요리기술을 익히기도 했다. 그리고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아 이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물론 한국어 관련 교육과 연구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한다.

카리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인내심을 키우며, 여러 일에 추진력이 강한 사회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러시아 연금 수급자 체육대회에서 사할린 대표단 상위 5위 안으로 진입

제 7회 러시아 연금 수급자 체육대회가 톨리아티에서 열린 가운데 경기에 전국 74개 지역의 대표자들이 출전했다. 대회에서 사할린의 연금 수급자 대표단은 단체별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사할린의 선수들은 다트 경기에서 우승을 따냈고, 사격 종목에서는 류보위 프레데이나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사격, 체스, 탁구,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수영, 다트 종목에서 경쟁했다.

"6년 동안 함께 노력해온 우리의 가장 큰 성과는 다트 종목 단체전에서 우승한 것이다. 경기에서 단숨에 8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74개 팀 중 우승 팀이 되었다."고 사할린 연금 수급자 연맹의 블라디미르 자벨린 부회장이 강조했다.

톨라 체육대회 때는 40위부터 순위가 매겨지는데 사할린 연금 수급자 대표팀이 4위에 오른 것은 대단한 성과로서 현재 전국 74개 지역 중 상위 5위 안으로 진입했다고 블라디미르 자벨린은 강조했다. 주스포부 측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вошли в пятерку сильнейших на Спартакиаде пенсионеров России

VII Спартакиада пенсионеров России прошла в Тольятти. За победу в стартах боролись 74 региона страны. 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стали четвертыми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Островные спортсмены показали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в дартсе, а по итогам состязаний в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Любовь Предеина взяла серебро.

Участники спартакиад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шахматах,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кроссе, плавании и дартсе. — Самое большое достижение, к которому мы шли вместе 6 лет — это победа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о дартсу. Мы стали лучшими среди 74 команд и заработали сразу 8 медалей. — подчеркну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юза пенсионе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Владимир Забелин отметил,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сбор-

ная команда пенсионеров проделала большую работу на пути к четвертому месту, ведь начинали на спартакиаде в Туле с 40-й строчки рейтинга, а теперь выбились в пятерку сильнейших среди 74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라비노비 크라이> 개최

<라비노비 크라이(마가목의 지역)>행사가 9월 30일(금) 시공원에서 열렸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전통행사가 팬데믹으로 인해 2년간의 공백기를 지나 다시 재활-문화 프로그램으로 돌아왔다. 이번 행사에 장애인 공공단체 대표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고령세대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운신이 불편한 분들은 특수 차량으로 수송했다.

행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민들을 위해 경연과 게임으로 2시간 가량의 문화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공예품 전시도 조성했다. 또한 '루스키 켈레' 현대 민요 앙상블의 공연이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여기에 기장족과 도너츠와 함께 차를 곁들인 간식은 따뜻한 교제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데 유쾌함을 더해주었다.

8월과 9월에는 재활-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건강의 장애를 지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450명을 위한 바닷가 소풍이 조성되었다고 시청 측이 전했다.

"Рябиновый край" состоялся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аздник "Рябиновый край" состоялс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После дву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связанного с пандемией, традиционное и любимое горожанами мероприятие снова вернулось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 встречу собрались более 20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нвалидов города и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участников в парк доставил спецтранспорт.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подготовили двухчасовую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конкурсами и играми. Работала выставка 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Укра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ансамбля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Полевая каша и горячий чай с выпечкой стали приятным дополнением к доброму общению и обсуждению планов будущих встреч.

В августе и сентябре в рамках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выезды на морское побережье для 450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имеющих особенности здоровья, сообщает мэрия города.

올해 13,000여 명의 사람들이 사할린과 쿠릴을 떠나

1월부터 6월까지 사할린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다. 주민신분등록소에 등록된 출생아는 2,909명, 사망자는 3,994명이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1,085명이며, 2021년 유사 기간 동안에는 1,072명이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지역은 쿠릴, 세웨로쿠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4개 지역에서 나타났다.

주내 혼인신고는 1,843건, 이혼 1,436건 기록되었으며, 2021년 유사 기간 혼인신고는 1,849건, 이혼 1,396건이 기록되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이주민 문제 관리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9,826명이 사할린과 쿠릴에 체류했으며, 이 중 50.4%가 상시 거주 목적으로 체류했다. 사할린을 떠난 사람은 13,305명으로 이 중 84.9%가 이전 거주지에서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 지역 내에서는 3,086명이 주거지를 옮겼고, 주민 감소는 3,479명에 달한다.

13 тысяч человек уехали с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этом году

За январь-июл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чена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населе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в органах ЗАГС 2909 родившихся и 3994 умерших. Естестве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1085 человек,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1 года убыль составляла 1072 человека. Превышение числа родившихся над числом умерших отмечено в четыр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Курильском,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и в город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1843 брака и 1436 разводов против 1849 браков и 1396 развод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1 года.

(8면에 계속)

한민족임을 잊지 않는 사할린 한인들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이다. 지난 5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의 주최로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만 아니라, 흠스크 동포들도 참석했다.

행사 진행을 맡은 최 안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임원은 "세계한인의 날은 2007년에 제정되어 한국 외교부 주관으로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하는 기념일."이라며 행사의 막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에게 림종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행정부 홍보실 안드레이 우샤예브 수석 전문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이 축하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박 소장은 "우리 출장소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사할린동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할린동포 사회의 유대감과 정체성을 심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사할린 한인동포사회가 서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화합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행사는 이날 다양한 발표로 이어졌다. 발표자가 많아 행사는 2부로 나뉘어졌다.

사할린한인 여성회 초대회장 최정순 현 김포 사할린동포 회장이 사할린 여성회 역사와 세계 한인 여성 네트워크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하이 올라 수석 연구전문가는 '백두산 대간'이란 주제로 한국의 상징 중 하나인 백두대간은 인문학적인 연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란 걸 강조하고 한국 예술에 관한 얘기도 했다.

사할린한인연구로 잘 알려진 진 율리아 역사학 준박사는 이날 아주 간략하게 '러시아 사회에 사할린한인 통합'이란 주제로 자신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사할린동포의 귀환 가능성, 1세대분들과의 인터뷰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 박사에 따르면 한국어로 돼 있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한국에서 출판된 그의 책들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현대 고려인 연구 시리즈의 제 5 권(저자 진 율리아)은 '강제동원의 땅: 사할린'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귀환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이란 연구서가 나왔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임원으로 활동한 김영순 (전 흠스크시한인회 회장) 씨는 이날 미즈호(포자르스코예)마을에서 1945년 8월에 일어난 27인 한인 비극적인 피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목을 끌었다.

사할린을 잠시 방문한 대하고려인협회 정영순 이



사는 한국으로 이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사할린한인 출신으로서 사할린한인을 포함해서 현재 한국에 재정착한 러시아 및 CIS지역의 고려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민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을 비롯해 고려인협회의 조치, 활동 등을 소개했다.

2부는 주로 문화와 관련된 발표가 이어졌다. 동포 2세인 이옥분 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챔버 오케스트라(현 심포니아 오케스트라)와 한국 국제문화공연 교류회(회장 양평수)의 교류 역사를 전했고 러시아 공훈 미술가 주명수 씨는 자신의 창작, 뿌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사할린에 대한 많은 노래들의 작사가로 잘 알려져 있고, 동포들 가운데 '멀고도 가까운 한국' 노래로 유명한 장태호 시인은 이날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자신의 새로운 시를 낭독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날 발표 중간중간에 시한인회 소속 합창단과 무용단, 강팔용 동포가수의 공연이 참가자들의 기분을 한층 돋우었다. 행사는 다과회로 마무리되었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번영 논의

전 세계 한인회장 및 한인회 연합회 64개국 333명 참석

전 세계 한인 리더들이 모여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의 번영을 논의하는 '2022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한인 이주 120주년을 맞이하여 한인 해외 이주의 첫 출발지였던 인천광역시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며,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과 유영준 중남미한인총연합회장이 대회 공동의장을 맡았다.

개회식에는 윤재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51명의 국내 주요인사와 한인 회장 및 한인회 총연합회 임원 64개국 333명(오프라인 260명, 온라인 73명)이 참석했다. 개회식 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환영오찬이 이어졌다.

'세계로 간 대(大)한국인, 돌아오다'라는 슬로

건 아래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732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공외교': Beautiful Koreans'라는 공동주제를 토대로 미국, 유럽, 캐나다, 아시아 등 10개 지역별 주요 현안토론과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인회의 운영사례 발표,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정부와의 대화 진행되며, 유관기관의 상설 홍보관이 상시 운영된다.

김성곤 이사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인 흥인 인간의 정신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존경받는 한인들이 되고, 모국 대한민국에도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글로벌 코리아'가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6시에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사할린 한인의 시민권 취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일간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책 고민

지난 1일(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동포 문제: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콘퍼런스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사할린 한인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 사회 활동가, 동포들이 모였다.



현재 '사할린동포' 다수가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중 많은 동포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르쿠츠크, 하바롭스크,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였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여 재정착한 상태이다.

이날 한국 영산대학교 최경옥 법학 교수는 '사할린 한인과의 대한민국 국적과의 관계', '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박봉수 박사(인하대)는 '고려인과 혼인한 사할린 한인의 삶과 이야기'란 발제를 하였다. 러시아 측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한인회 김복곤 부회장과 사할린 한인 2세 이채인 씨(유즈노사할린스크 거주)가 대표했다. 김 부회장은 '종전 직후 사할린한인의 문제와 연합국의 법적 책임', 이채인 대표는 '한국 국적 취득과 영주귀국에 관한 사할린 사할린한인의 의견'이란 주제 내용으로 발표했다.

발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돼 있었고 진행은 이 두 언어에 능통한 박 알렉산드르 변호사(모스크바)가 맡았다.

이날 주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총영사관 측에서 인사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할린한인들의 미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채인(유즈노사할린스크) 동포 2세는 사할린 한인의 대한민국 재정착 문제와 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소개하고 시민권에 관계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 손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5-2013년간 정의복권재단 지도자로 활동한 김복곤(상트페테르부르크) 씨는 장기간 모아놓은 강제징용, 영주귀국 문제 등에 대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사할린한인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국과 일본의 책임과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국적회복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박봉수 소장은(한국, 인천) 한국 내 영주귀국자들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재정착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사할린 현지에 계신 동포와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신 사할린한인 당사자들이 정부에 끊임 없이 사할린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핵심적인 발표를 한 최경옥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할린 한인'이란 단어는 역사의 무게를 안고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한다. 살펴보았듯이 「사할린 동포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할린 한인'의 문제는 영주귀국만이 답은 아니다. 우선, '사할린 한인'에 대한 국적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이 러시아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도 인정하는 방안을 러시아와 협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나긴 숙제이며 책무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영주귀국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겨우 그 법이 성립되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사할린 동포'를 정하는 '1945년 8월 15일'이라는 규정은 그 기간 설정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이산가족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동반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할린 한인 1세와 그 후손들(배우자 포함)이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 등도 지원하고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동법 제3조(국가의 책무)에서, '국가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피해구제...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적 인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판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할린 한인' 1세와 그 후손들에 대하여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의 자동회복, 이들이 한국과 러시아에서 살아온 날들을 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인정방안도 러시아와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갈길이 먼 '사할린 한인'에 대한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질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해본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사흐코르>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최영구 회장은 사할린 한인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권리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영주귀국 및 재정착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사할린 한인 활동가들이 여러 시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같이 힘을 모아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세미나가 열리기 전 이틀간 (2022년 9월 29일과 30일) 원탁모임(좌담회)이 소집되어 사할린한인들의 문제에 대해 여러 지역의 대표들이 의견을 논의한 가운데 사할린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입증되었고, 구체적인 체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회의 참가자들은 지난 9월 19일 한국 국회 이명수 의원이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유족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에 이 개정안에 모두 적극 지지한다고 전해졌다. (배순신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День планетарный Кимов, Цоев, Паков, Ли...
В сопливом детстве представить ли могли,
Что время подойдет, Корею озарят лучи...
И станет лакомством «вонючее» кимчи

Вошли давно мы в двадцать первый век,
Заметным стал повсюду корейский человек
Своим трудом несет он миру скромный дар...
Теплом наполненный, как солнечный нектар

Сегодня мы осознаем, что мир един!
Осознаем, как никогда, что дом наш – Сахалин!
От чувств переполняющих хмеля,
Я говорю: мы есть, друзья! И есть одна Корея!

05.10.202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ТЭХО Ча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5 октября 2022 года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прошла встреч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уроченная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Дню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Более 60 человек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Холмска собрались вместе, чтобы отметить этот праздник, который берет свое начало с 2007 года и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7,5 миллионов из 193 стран. Встреч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С поздравительной речью в адре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ыступ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Лим Ден Хва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дрей Ушаев и гла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г-н Пак Сан Тхэ.

ЮСМООК решило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в форме встречи. Первой выступающей стала Хай Ольга,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которая рассказала о горе Пэктусан, которая наравне с другими символами Кореи, играет важную мифологическую и культурную роль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очетн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Цой Ден Сун (Зоя Михайловна) поделилась со слушателями историей созд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ей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КОВИНЕР, где успешные кореянки со всего мира принимаю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задач 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акциях для развити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Рассказ о трагедии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перенес всех в август 1945 года. Об этом поведала серебряный волонтер из Холмска Надежда Ким...

Кстати, недавно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архивные данные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были переданы в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Инициатором этого стала историк-кореевед Юлия Дин, которая тоже была приглашена на встречу в качестве спикера. Для такого именитого лектора, специалиста по истории и диаспорологии, отведенного времени совсем было немного. Но тем,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лия Дин рекомендовала к прочтению свои монографии,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недавно изданы в Корею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Тен Жан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оторая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облемах,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на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а также о том, какие цели и задачи ставит перед собой эт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в рамках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Об опыте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 ностальгией вспоминала Ри Ок Пун.

Песни и танцы в исполнении творче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при ЮСМООК, стихи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эта Чан Тэхо (публикуются выше), рассказ о творчестве художника Дю Менсу стали украшением мероприятия.

Вечер закончился небольшим фуршетом, на котором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гости и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Жанна ТЕН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бсудили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 октября 2022г. в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прош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ерспективы решения». Инициатором и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КОР».

На форум собр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только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о 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Как известно, на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т не толь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также и в Иркутской, Новосибирской областях, Хабаровском и Приморском краях, г. Москве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нечно,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 работ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не только те, кт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иехал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о также и т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кто, учитывая логистические затруднения (отсутствие прямых авиарейсов, высокий спрос на авиа и ж/д билеты), не смог приехать лично. Для них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трансляция конференции в Zoom.

С приветственной речью к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обратился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й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знает о нерешенности вопрос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предь будет уделя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этому и пожелал успешной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Право перв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был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И Че Ын (Сергею Александровичу) из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торый в своей речи с болью выразил горечь разочар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нашли долж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Г-н И Че Ын подробно изложил свое видение о конкретных мерах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ш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и их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Программн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стал доклад профессора юриспруденции Университета Енсан г-жи Чой Ген Ок на тему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фессор Чой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читателям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которая опубликовала целую серию ее статей на тему юридического обоснован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К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Доклад профессора Чой основан на материалах ее длите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о правовых основах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нем обобщена позиция суд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вопросу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гражданства Р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дан анализ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со ссылкой на конкретные статьи законов, которые по мнению профессора Чой могут и должны стать юридической осново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К большинством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 процедуре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профессору Чой были заданы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вопросы от участников в зале и через Zoom, на которые докладчик любезно ответила.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вызвал доклад Директор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Диаспора» (г. Инчхон) г-жи Пак Бонг Су, которая известна свои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по проблемам мигра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рею.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узнали о том, с ка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трудового характера сталкиваются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иехавшие в Корею на ПМЖ, а также их семьи, дети. Знание этих фактов важно для предвосхищения многих проблем в будущем для тех, кто планирует переезд по программе ПМЖ.

Завершил конференцию доклад известного правозащитника Ким Бок Кона (Виктора Михайловича) на тему «Послевоенн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юридическ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союзных держав».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Ким Бок Кон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ведет общественную работу, нацеленную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окладчик поделился уникальными архив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которые проливают свет на то, через какие сложности пришлось пройти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отметили важность продолжения этой работы.

Подводя итоги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КОР» Цой Ен Го призвал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к объединению усилий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работы по защите пра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получение гражданства РК и расширение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Известно, что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активистами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предпринима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опытки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целью конференции было именно объединение этих усилий, замечательных, но разрозненных, для эффективного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будущем.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работе форума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двухдневная работа (29 и 30 сентября 2022г.)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активист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В итоге позитив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работы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о принятие совместного заявления, которым предложено расширить опреде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как это сформулировано в Специальном законе Кореи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т 30.04.2022г., обоснова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и систематизированы конкретные меры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Расширение круга лиц для участ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законом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включение в программу лиц 2-го поколения;

- Расширение (дифференциация)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в том числе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обучение профессии, прочее);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3-го поколения права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ез отказа от гражданства РФ;

-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ддержка усилий по компенсации вклад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японских банках, потерянных в связи с событиям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роме того,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поддержали законопроект депута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на Ли Мен Су (이명수 의원),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парламента страны.

Ну, 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 в дальнейшем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вести работу по координации решения вышеуказанных задач,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инициировали создание Комитета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ександр ПАК, Москв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К вновь запустила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4 октября в 7:23 утр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пустила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из района деревни Мупхён-ри провинции Чагандо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возможно речь идёт о ракете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Есть данные о том, что траектория её полёта проходила через воздуш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Японии в районе префектур Аомори и Хоккайдо. Ведётся анализ более подробн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ракеты. С начала года Север провёл 21 испытательный запуск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По предположениям военных, применялись реактивные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сверхбольшого калибра» KN-25,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аналог российск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Искандер» KN-23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верс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армейского тактического 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ATACMS.

В РК отменено требование о прохождении ПЦР-теста в первые сутки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С 1 октября в РК отменено требование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прохождении ПЦР-теста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в первые сутки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страну. Об этом 30 сентября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штаба Ли Ги Иль. По его словам, при принятии данного решения учитывалось сокращение доли ввозн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низкий уровень смертности штамма ВА.5, на который приходится большая доля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оликлиниках можно бесплатно пройти ПЦР-тест. Вместе с тем Ли Ги Иль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требование об обязательном прохождении ПЦР-теста в первые сутки может быть возвращено в случае появления новых штаммов коронавируса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смертности. Между тем, с 4 октября возобновля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очных встреч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и пансионатах длительного ухода.

Дома престарелых вновь открыты для посещений

4 октября возобновилось проведение очных встреч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и пансионатах длительного ухода. Центральный штаб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объяснил это решение улучшением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и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прохождения четвертой вакцинации среди работников и пациентов вышеуказа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в домах престарелых и пансионатах длительного ухода при условии получения отрицательного результата экспресс-теста перед посещением.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необходимо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использовать маски и воздерживаться от употребления пищи. Также пациентам разрешено на время покидать да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и условии получения четвертой вакцины от COVID-19.

В РК растёт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В августе РК посетили 310.945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то на 220,3%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ие данные 30 сентября опубликовала Национ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зма Кореи.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показатель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благодаря ослаблению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и возобновлению безвизового режима.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туристов приходится на граждан США. Далее следуют гости из Китая, Японии, Вьетнама. Особенно отмечается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туристов из Японии на 1.072,8% и Тайваня на 632,3%. Во многом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безвизовый режим, временно введённый в августе в отношении Японии, Тайваня и Макао, был продлён до 31 октября. Поток туристов из Китая вырос на 76,9%. Между тем, за рубеж в августе отправились 702.153 южнокорейца.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на 409,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В Кояне состоится выставка индустрии красоты K-Beauty Expo Korea

С 6 по 8 октября в РК состоится крупнейшая в стране выставка индустрии красоты K-Beauty Expo Korea. 14-е по счёту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Корей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ыставочном центре KINTEX в городе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320 профильны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ят свою продукцию и услуги, подготовив 400 стендов. В период пиков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отечественные компании, занятые в сфере красоты, не имели широкого доступа к очным контактам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клиентами. Поэтому в этот раз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ставки уделили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этому моменту.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вопросу экспорт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100 компаний из 32 стран. Среди них крупные торговые сети из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России, Индии, Польш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RKI)

Южная Корея показала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монстр"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выяснил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монстра", видеоролик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которой был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 1 октября в ходе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выяснилось, это самая мощная ракета Южной Кореи "Хенму-5", которая способна нести боеголовку весом в восемь-девять тонн, что создаёт огромную разрушительную силу. Сама же ракета является пер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ракетой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кадры бы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ы в ход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посвящённой 74-й годовщине создания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шедшей на военной базе Керендэ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хунчхон.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Ель, который пообещал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олное уничтожение за счет совместного сокрушающего удара силами РК и США", если КНДР попытается примени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подтверждение слов лидера был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н видеоролик, в котором было показано, как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удар возмездия" в рамках системы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предназначенной для ответа на возможную атаку со сторон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нима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влекли кадры с неизвест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которая наносила удар по хорошо укрепленной подземной цели.

Вскоре источни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м СМИ, что это была показана нов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БР) "Хенму-5", которую за гигантские размеры ее боевой части назвали "ракето-монстром". Про ракету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она задействуется способом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минометного" или "холодного" запуска. Это метод, когда ракета из пускового контейнера выбрасывается в воздух на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метров и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у нее

включаются собственные основные двигатели. Было сообщено, что "Хенму-5" выбрасывается на высоту примерно 30 метров, что позволяет избежать разрушения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и в связи с работой двигателя.

Особенно удивили размеры боеголовки ракеты. "Ракета-монстр", как было заявлено, может нести боевую часть (БЧ) весом до восьми-девяти тонн на расстоянии до 300 км.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 зоне поражения данной ракеты с огромной БЧ находится Пхеньян. "Хенму-5" за счет такой боеголовки, как утверждается, может одним ударом поразить находящийся на глубине 100 м укрепленный подземный бункер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Именно имитацию этого удара и показали на рекламном ролике. Источник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добавил, что БЧ такого размера одним ударом сможет уничтожать большие объекты типа Кимсусанского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Пхеньяне.

Местные эксперты были удивлены подобной "ракето-монстром". Для сравнения: ракета "Хенму-4", которая до сих пор считалась самой мощной в Южной Корее, имеет БЧ весом две тонны. "Это удивительный вес боеголовки, которую трудно представить, сравнивая с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аналогичными типами ракет", - заявил специалист в области ракетостроения профессор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ула Чан Ен Гын.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ели расчеты и выяснили, что если снизить вес боеголовки до одной тонны, то "Хенму-5" сможет поражать цели на расстоянии свыше трех тысяч км. Это ставит в зону поражения ракеты всю территорию соседнего Китая. Кроме тог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отныне у Южной Кореи появилась первая собственн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Как считают вое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она станет осно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ответа 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нения КНДР тактического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Командование объединённых сил РК и США переедет в Пхёнхэк в октябре

Командование объединённых сил РК и США, которое размещается в сеульском районе Ёнсан, начинает переезд на базу Camp Humphreys в городе Пхёнхэк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уда ранее перенесли командование восьмой армии США. Об этом 4 октября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К. Командование объединённых сил РК и США было размещено в столичном районе Ёнсан в 1978 году.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ереносе штаба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ов обороны двух стран в июне 2019 года. После этого стороны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готовке реализаци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плана.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ходе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го совещания по вопросам совмест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SCM) было решено завершить переезд в этом году. Около 70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американских офицеров командования будут переведены в Пхёнхэк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В ноябре состоится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наменующая начало работы командования на американской базе Camp Humphreys.

KBS World

К 2070 году пожилые составят половину населения РК

К 2070 году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сократится до 38 млн челове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5 сентябр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В этом году население мира составило 7 млрд 970 млн человек. Ожидается, что к 2070 году оно достигнет 10 млрд 300 млн человек, и темпы его роста замедлятся. В РК уже фиксируется отрицательный прирост населения. В 2022 году он составил минус 0,23%, а к 2070 году, по прогнозам, упадёт до минус 1,24%. В 2021 году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уммарны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в стране составил 0,81.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это худший показатель в мире. Среднемировой коэффициент - 2,32. При этом ожидаемая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составляет 83,5 года, на 11,5 года выше среднемировой. Серьёзные опасения вызывает то, что доля пожилых к 2070 году составит 46,4% населения.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на составляет 17,5%. РК занимает 29-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но в 2070 году может опуститься на 59-е место

KBS World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расширить програм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нял вопрос приведения в порядок дворов и подъездов, об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еобразили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двор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ланируйте такой же объем 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ь этот вопрос. На островах не должно оставаться ни одного разбитого, неухоженного двора.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должаем приводить в порядок подъезды. В каждом должно быть чисто, аккуратно, побелено, покрашено. Когда люди видят красоту и уют, они сами стремятся поддерживать это. К следующему лету для каждого двора подготовим рассаду цве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м году разводили 600 тысяч цветов, в следующем будет миллион,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поручил организовать работу студенческих строительных отрядов, чтобы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работу по озеленению остров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Такж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украсить фасад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жилые дома и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нанести изображения, связанные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дл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моментами.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планиру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ить 28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14 из них уже преобразили – это сквер у памятника воинам - охинцам, павшим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территория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Комсомольской и Севастьянова, сквер имени Чехова и сквер «Славы» в Долинске, сельская площадь в Чехове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мемориальная площадь в селе Арги-Паг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бщественная территория при Аллее славы в Макарове, Сквер искусств в Курильске и другие.

За счет областных и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капитальным ремонтом охватили 170 дворов, хотя из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120 дворов.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1000 двор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же сданы 70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15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Лидерами выступают Поронайский, Долинский, Невель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е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уже готовы 63 двора в 12 районах. Наибольший объем работ выполн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и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ах.

Помимо капитальных работ,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ыполняется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ямочного ремонта. В этом году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987 дворов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Безусловным лидером стал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 447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далее идут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 89, Холмский – 86, Долинский и Охинский – по 54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и.

Школьники из от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побывали на экскурсиях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Более 150 детей из Тымовского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посетили аквапарк, музеи и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квестов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вместно с ПК «Сахалин» проработали логистику,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дети еду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поезде в ночь. Экскурсион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них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дня, а вечером – обратный путь.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комфортной поездки для детей предусмотрен отдельный вагон и сопровождающие-взрослые. Также изменено наполнение экскурс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к уже традиционному посещению музее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аквапарку «Аква Сити»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гре «Мозгобойня» организаторы добавили варианты посещения зоопарка 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ети попадают в настоящее путешествие одного дня, наполненное эмоциями, новыми знаниями 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Мы постарались соединить познавательную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ую части программы. Цель у нас одна: привить любовь к своей Родине, к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краеведению.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это получится, потому что отзывы от тех, кто уж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только положительны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ланируем привезти в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детей из Охи и с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Несмотря на дождливую погоду, школьники отметили красоту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Ребята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хотят побывать в самом крупном аквапарк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Все экскурсии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е. Особенно запомнилась позна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формате квеста. Подрастающему поколению очень важно знать историю родного края, – поделилась юная участница экскурсий Валерия.

Напомним, программа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а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ено, выделено более 6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Для детей экскурсии абсолютно бесплатны.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е родителям необхо-

димо оформить ребенку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или электронный социальный сертификат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Координирует реализацию программы министерство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участ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 начала года островную столицу посетило свыше 13,5 тысяч детей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 экскурсиях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дет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туризма побывает еще около 3 тысяч школьников.

Форум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прошел под знаком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я и улучшения жизни в регионе

Итог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подве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фиксировав основные положительные эффекты от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рекордное число делегатов – 744 специалиста из 86 делегаций, 97 спикеров и 20 партнеров. В числе докладчиков бы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федер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оп-менеджеры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разработчики иннов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нвесторы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эксперты.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является значим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инятия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На полях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ал ряд значимых соглашений.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омпанией «Газпром геблий сервис» будет создаваться транспортный центр.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переход грузоперевозок с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газомоторное.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с «Хевел Энергосервис» на Курилах должна появиться солнечная электростанция. Еще одно соглашение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туден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ланируется запусти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бакалавриата и магистратуры «Приборостроение».

В ходе форума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 на новой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й станции провели торже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пуска газа. Это позволит перевести на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котельные района и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подключения к газу почти 3 тысяч домовладений.

– Форум – это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работы на площадке, но колоссальный эффект для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что несомненно отражается на жизн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Газпром» стал основным партнером форума. И это не просто формальность, но обозначение четкого курса на развитие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крупнейшей компанией. Мы намерены форсировать запуск «Сахалин-3»,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фтегазового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сохрани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в условиях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Несмотря на события в мире, проект «Сахалин-2» развивается как российская компания и наращивает добычу. Иностранцев специалистов заменяют российские и работают эффективно.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сегодня смещается на восток, и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ваются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развитие нефтегаз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оказывает самое прямое влияние на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В ходе форума «Нефть и газ Сахалина» заложили символический первый камень в основа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ниверсальн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зал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возведен на средства «Газпрома». В его стенах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ся не только игровые виды спорта, но гимнастика. Объект буд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всем мировым стандартам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портсменов и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Кроме того,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Газпром» уже приступил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центра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Передов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явилось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а

В Охинской и Ногликской ЦРБ внедр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аппараты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желудочно-кишечного тракта. Они, в том числе, позволят выявлять онкологические патологии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Для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аппаратура приобрете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модернизация медучреждени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Охинской ЦРБ с помощью фиброгастроскопа сегодня прошел диагностику первый пациент. Иван Никишин обратился в поликлинику с жалобой на недомогание в области живота. Чтобы исключить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и уточнить диагноз, врач сразу направил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 Удобно, что эндоскопический кабинет находится прямо в поликлинике. Меня быстро обследовали, и вся картинка тут же оказалась у моего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Есть небольшие отклонения, нужно под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питание, попить таблетки. Главное, что все вовремя выявили, – поделился пациент.

Н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прежних аналогов высоким разрешением изображения и наличием монитора. Прежде специалисту приходилось осуществлять визуализацию вручную. Сейчас изображение можно разместить в архиве, оно будет доступно всем специали-

стам,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с пациентом. Также в комплект входит набор щипцов для забора тканей. Если во время процедуры в поле зрения попадет сомнительный объект, специалист сможет сразу взять образец для гистологии.

– С помощью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можно провести весь комплекс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 подозрении на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е пациенту не нужно будет второй раз проходить процедуру. Вся информация сохраняется в базе данных,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Охинской ЦРБ Татьяна Супрунова.

Два месяца назад аналогич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ступило в Ногликскую ЦРБ. С его помощью уже проведено около 300 исследований. Улучшен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региона происходит не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поставк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и первичного зве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ц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доставлены 57 машин, две из них направлены в Охинскую ЦРБ, продолжаются капитальные ремонты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Центры «Мой Бизнес» оказывают более 400 бесплатных услуг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чередной прием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и действующих бизнесменов провели специалисты департамент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В ходе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помощь по развитию и продвижению бизнеса и мерам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пять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один самозанятый и гражданин, планирующий открыть ИП.

Также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рассказали корсаковцам об условиях кредитования и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ну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ля получения займа. Не смотря на изменения ключевой ставки, займы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здесь по-прежнему выдаются по минимальным ставкам от 4%. Часть недополученной прибыли банков в рамках таких субсидируемых займов закрывает бюджет. Взамен –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оздают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обеспечивают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регион.

В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самозанятые региона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ддержкой – от получения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обучения до помощи в продвижении товар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рынки. Всего таких бесплатных услуг оказывается порядка 400.

Для удобств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з любого гор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по номеру 8 800 222 0123.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находится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Емельянова 6.

В финал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Ученик года» прошли три сахалинца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имена финалистов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обучающих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еник года – 2022»: ими стали 150 школьников из 42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пройдет с 10 по 15 октября 2022 года в Ульяновске.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среди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води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номинациям: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учающихся года», «Общественник года», «Доброволец года», «Патриот года», «Творческая личность года», «Спортсмен года», «Интеллект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прошел очень активно и динамично, участники заявили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номинациях,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от Охи 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верен, что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участников, прошедших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очный этап станет ещё больше, надеемся, что ребята вернутся с Ульяновска с победой»,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Молодёжи,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региона Александр Гаранин.

Финалист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обучающих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еник года – 2022»:

1. Мирошникова Кристина, МАОУ СОШ № 3,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2. Щербак Дарья, МАОУ СОШ № 32,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3. Русаков Александр, МАОУ СОШ № 4, г. Корсаков

Конкурс входит во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еречень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на 2022-2023 учебный год, реализуемых в том числе детскими и молодежны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динениями, утвержде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в 2022 году выступи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оссийский Союз Молодеж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льян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ГБОУ ВО «Ульян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И. Н. Ульянова».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грантовой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 명칭과 한인회 등록제 논의 제125차 재외동포포럼

재외동포의 이름 찾기

이름은 호칭을 넘어 관계성과 정체성을 반영한다. 전 세계 193개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이 무엇으로 불려질지 원할까. 동포, 한인, 교포, 교민, 재외국민, 한인 디아스포라, 한민족, 조선인, 코리아, 고려인(카레이츠키)...

재외동포들은 많은 용어들 중에서 '동포'와 '한인'이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동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연구원(원장 임채완)이 최근 미주한인 등 재외동포 1,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바람직한 재외동포 명칭'으로 42.8%가 '동포'를, 이어 26.9%가 '한인'을 꼽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동포'라는 단어에 대해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정감을 담은 호칭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재외동포에 대한 호칭이 혼재돼 쓰이는 가운데, 일상적 학문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해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봉제)은 지난 9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125차 포럼으로 '재외동포의 명칭과 한인회 등록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임채완 전남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교민'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1961년 외교부에 교민과가 생긴 이래 1974년 영사교민국, 1998년 재외국민영사국, 2005년 재외동포영사국으로 명칭이 변했고, 2007년 '세계한인의날'(10월5일) 공식행사에서도 재외동포 관련 명칭은 계속 바뀌어왔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재외동포의 명칭은 정체성, 역사성, 포용성, 합의성, 지속성, 목표성 등을 포괄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사용하는 용어는 수십 가지가 돼 너무나 혼란스럽다"며 "최소한 한국과 재외동포들이 합의할 수 있는 용어 정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호칭의 정립이 필요한 이유

일본과 중국은 해외 거주하는 자국민을 교포라고 부른다. 우리도 한때는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교포' 보다는 '동포' 또는 '한인'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로 '한인'이라고 표현한다. 유래는 1910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 세운 '대한민국민회'로 인해 미국 거주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한인'이라고 부르게 됐다.

정작 한국에선 동포, 한인, 교포, 교민, 조선족, 고려인, 재외국민 등의 명칭이 혼용되면서 용어의 통일성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재일동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교포 등 호칭사용이 대단히 혼란스럽다. 중국에서는 조선족, 중국동포, 러시아 CIS에서는 고려인, 카레이츨라는 명칭이 쓰인다.

임채완 교수는 '재외동포의 명칭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재외동포의 명칭이 이처럼 다양하고 혼란스럽게 된 배경에 대해 망국과 전쟁, 혁명 등 한반도의 빈번한 체제변동과 정치사회적 변화를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계 재외동포를 '코리아 디아스포라'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 "현대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는 같은 민족적인 기원을 지닌 사람들이 여러나라에 흩어져 살거나 동일한 신념 체계를 지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적유무, 출신지역, 분야별 용어 등을 아우르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동포'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 밖에 나가 있는 공간적 개념을 추가해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가장 보편적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임 교수는 "한국은 물론 해외 한인 커뮤니티와 학계를 중심으로 재외동포를 둘러싼 공식적이고 법률적 학술적으로 보편화가 가능한 포괄적 명칭의 정립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포, 한인, 그리고 '세계 한인'

토론자로 참여한 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전체 동포를 동포라고 부른다면 국가별로 동포를 지칭할 때 그 앞에 국가명이 들어가야 한다. 명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동포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명칭은 공공재로서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양쪽이 기꺼이 수용하면서 동시에 상호 간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내는 명칭을 찾아내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결 방법으로 동포 또는 한인보다 '세계 한인'이 적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동포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면서 학술적인 엄밀함과 일반적 대중성을 가진 명칭을 선정해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람직한 동포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동포 명칭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권고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여한 임영언 재외한인학회 회장은 "동포라는 용어는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형제자매처럼 아우르는 호칭"이라며 "임채완 교수는 발제문에서 유대인, 인교, 화교, 화인 등은 고유의 종족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지칭 대상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도 재외 동포와 재외 한인에서 '재외'라는 단어를 제거하고, 앞으로 동포(Dongpo) 또는 한인(Hanin)의 명칭을 사용하고, 나아가 고유의 종족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호칭으로 재외 한인(Overseas Korean) 또는 '한인'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조선인, 조선족, 고려인, 한인 혹은 한국계 등 혈통, 국적, 종족성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이미 언어의 사회성을 획득한 '재외동포' 대신 '재외한인' 또는 '한인'이라는 용어가 정착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인회 등록제'가 나온 배경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193개국에 나가는 한인들은 결국 남의 나라에 살면서 고달픈 삶을 영위하는 만큼 한인공동체를 만들어 한인끼리 뭉쳐야 하는 절실한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인회가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크고 작은 많은 한인회에서 분열과 갈등이 불거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성장했고 이와 함께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인회는 분열 갈등이 없는 성숙한 운영으로 동포사회 내부와 차세대 후손들에게 신뢰받아야 하고, 거주국 국민들에게도 신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193개국에 약 732만명에 달한다. 코리아넷에 등록된 한인회 수는 463개이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한인회까지 합하면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의 주요 지역에는 한인회가 거의 다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인회 등록제는 2016년 초 당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제안으로 동포사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일부 한인회들의 반대로 중도하차한 적이 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포재단이나 정부가 지원금을 교부할 때 공신력 있는 단체에 줘야 하고 또 국민세금이 나가는 만큼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필요성에서 당시 '등록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한인회 등록제 설문 조사와 토론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는 '한인회 등록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주동원 코리아 리서치 센터 대표(뉴욕)와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서울)가 재미동포와 재미동포 이외지역을 나누어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김용필 대표가 종합해 발제문을 집필하고 발표했다.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연구원, 코리아리서치센터, 동포세계신문이 미주한인 등 재외한인 1,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46명의 답변을 들었다. 미주한인 이외지역은 코리아넷 등록 한인회 396곳과 동포 관련 커뮤니티에 공지해 46명의 답변을 들었다.

설문 조사에서, '한인회가 한인사회를 대표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미주한인이 60%, 이외지역은 73.9%가 '대표성 있다'고 응답했다.

'한인회가 동포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미주한인 55.5%, 이외 지역 6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역 한인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거주 한인의 무관심과 참여부족(43.1%) ▲지도자의 부족(26.4%) ▲운영자금의 부족(19.4%) ▲임원 간의 갈등과 다툼(11.1%) 순으로 조사됐다.

한인회 등록제에 대해선 미주한인 72%, 이외 지역 84.8%가 "한인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한인회등록제가 한인회 난립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주지역 61.7%, 이외지역 73.9%가 "예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재외동포의 명칭과 한인회 등록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재외동포들은 한인회 활동 유경험자가 많았다. 이 중 한 응답자는 "한인회가 동포사회의 상징적 구심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대표성을 가지고 한인회장으로서 바람직하게 활동하는 분도 있고 동포사회에 누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등록제에 대해 정부의 간섭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재외동포는 "등록제를 통해 한인회에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스템은 좋지 않다"며 한인회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인회 등록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한인회 규모가 작고 활동이 미흡한 지역을 위해서 공관의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 공관과 한인단체의 소통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말했다.

폴 송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괄수석부회장은 "미주총연에는 산하 180개 한인회가 있고 성격과 활동이 다양하다. 각 지역 한인회는 지역 정치권과 밀접하게 소통된다. 한인회는 현지 동포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데, 한국 정부가 통제해도 분규와 갈등은 계속되고 한인회 위상만 낮아진다"면서 "미주총연은 자체적으로 지역 한인회에 정관, 이사회, 세금, 선거 그리고 비영리단체 등록 등의 구비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분열, 갈등을 조정하는 내부 역량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미주총연은 대다수의 현지 한인회장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송 부회장은 "한인회 등록제는 한인회 분규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수단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한인회 등록제의 장점을 살려 시행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한인회가 분열상황이라고 무조건 '분규단체 지정'을 하지 말고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다수가 지지하는 단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모 아시아한상연합회 부회장은 "동남아시아는 사단법인 등록이 쉽다. 사단법인이 되면 기부, 통장 개설,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다"며 "한인회 등록제를 관치나 인허가 관점이 아니라 각국 한인사회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인준제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인회의 분열, 갈등에 대해서는 연합회에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해결할 내부 역량이 있다"고 했다.

정현재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부회장은 "대륙별 총연합회나 지역연합회는 한인회장 '개인'이 아닌 '단체'가 회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현직 회장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인회와 한글학교를 비롯한 한인단체는 계속성이 중요하다. 선거는 정관이나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경선으로 선거를 치르면 후유증으로 갈등, 분열을 겪는다. 갈등, 분열의 예방과 치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인회장을 맡은 지 9개월된 '새내기 한인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영훈 튀르키예한인회 회장은 "회원이 많고 조직이 크면 분열이 일어나기 쉽다. 갈등 문제는 정관에 따른 운영으로 예방하고, 원로들의 조정과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 복수의 한인회나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따로 또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 협력하면 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한인회 등록제가 한인회 난립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미주지역 61.7%, 이외지역 73.9%인 것과 달리, 한인회장 토론자들은 한인회 분열과 갈등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목적보다 한인회 발전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한인회 등록제가 설계되고 운영되기를 희망했다.

분열과 갈등은 연합회 내부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인회 등록제는 필요하지만, 관치나 관리, 통제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지원 요소를 강화하면 수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현직 한인회장이 연합회장을 선출하고 간결한 정관을 엄격하게 운영해 분열,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인회장들과 재외동포재단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한인회 등록제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о данным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миграци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январь-июль 2022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рибыло 9826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почти 50,4% —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Выбыло 13305 человек, из которых 84,9% снято с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учета по прежнему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В пре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еняли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3086 человек. Миграционная убыль составила 3479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Сахалинстат.

사할린에서 세계 걷기의 날에 1,000여 명 참가

10월 2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 러시아 걷기의 날을 맞아 대규모 행사가 열려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및 관광단지 스키장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2015년부터 전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첫 행사는 웬스카야 거리에서 시작돼 100명이 참가했다. 매해 주최 측은 매년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도록 걷기 코스를 변경하고 있다.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고르니 워즈두흐'의 남서쪽으로 2km의 곡선 코스를 걸어야 했다.

출발하기 전 러시아 연방 스포츠 및 체육문화 전문가이자, 러시아 케틀벨 종목 선수이며, 전국 격투기 경기 우승자인 안드레이 미로쉬니코브가 몸풀기를 진행했다.

결승선에 도착한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과 참가 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노인자원봉사자들이 이 행사 개최를 도왔다. 행사 방문객들을 위해서 사격 및 상호작용 프로그램과 록 그룹의 공연이 준비되었고, 또한 건강 진단과 사진 마그네틱 구역도 운영됐다. 여기에 맛있는 죽과 향기로운 차로 기운을 북돋았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ходьбы на Сахалине собрал 1000 участников

Массовый старт, приуроченный ко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ходьбы, провели 2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на склон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собрало порядка 1000 участников.

Традиционное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ят с 2015 года. Первый старт был на улице Венской, тогда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около 100 человек.

Каждый год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няют маршрут, чтобы даже постоянные участники находили для себя новые виды. В этот раз спортсмен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два километра по юго-западному серпантину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Перед началом прошла разминка от специалиста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РФ,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гиревому двоеборью, победителя всероссийских турниров по рукопашному бою и современному панкратиону — Андрея Мирошникова.

На финише каждый получил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и сертификаты участника. Помогали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волонтеры, в том числе и серебряные.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организовали интерактивы, тир и выступление рок-группы. Работала зона с фотомагнитами и пункт проверки здоровья.

Подкрепиться можно было вкусной кашей и ароматным чаем,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한국 인천에 영주귀국하신 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한국) 공노원 부회장(1941년생)이 향년 81세를 일기로 2022년 9월 30일 별세하였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잠긴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공노원 선생님은 장기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동양어문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했고 영주귀국하신 후에도 사할린한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헌신하셨고 사할린과 한국간 문화교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새고려신문사

После долгой, яркой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жизни Кон Но Вон (Еле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1941 г. р.) обрела покой 30 сентября 2022 г. Еле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вписала свое имя в истор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в Инчхон в 2007 г. внесл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выражает глубокие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Реклам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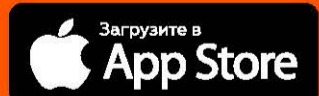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еда.сах.ком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